

## 블로블사를 찾는 현대인들

먹고 마시기만 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수명이 늘어나는 샘물이 있다면 누구나 마시고 싶어 안달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회춘의 샘, 젊음의 샘, 청춘의 샘(Fountain of Youth)이라고 부른다. 젊어지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옛사람들도 회춘을 바라왔던 모양이다. 회춘의 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있다.

### 블로블사를 꿈꾼 인류

회춘의 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라고 한다. 그는 BC 5세기 사람이니 적어도 그의 생전 이전부터 사람들은 블로블사를 꿈꿔왔다는 이야기가 된다. 여러 나라의 신화나 문화 속에도 블로초와 청춘의 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다. 성경 또한 예외가 아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무려 939세를 살았고 그밖에 아담, 노아 등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다수가 900세 이상을 살았으며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다. 또한 길가메쉬나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진시황이나 한무제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천하의 영웅 중의 영웅들의 이야기에 블로초나 청춘의 샘을 찾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들이 영웅이라 그 이야기가 전승되어서 이어졌지만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도 오래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할 것이다. 한마디로 블로블사는 인류의 꿈이자 소망이다.

최소한 기원 전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현존 인류 최초의 책인 길가메쉬 서사시(Epic of Gilgamesh)는 우루크 왕자 영웅인 길가메쉬의 삶을 노래했다. 길가메쉬는 3분의 2는 신, 3분의 1은 인간인 초인(超人)이다. 이것은 그의 몸의 3분의 2가 신이고 나머지 1분이 인간이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한마디로 길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바이오 테크노로지 연구가 한창이다 (사진 출처 Canva)

메쉬는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초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표현일 것이다. 이 서사시에는 그의 영웅담이 전승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길가메쉬 왕에 대한 영웅담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오면서 살아 불었음 것이라고 말한다.

###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쉬에도 영생을 찾는 이야기가 있다

아무튼 그의 이야기 중에서 절친의 죽음으로 받은 충격으로 죽지 않는 비밀을 찾아 나선 여정이 흥미롭다. 마치 석가모니가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것이 연상된다. 길가메쉬는 고생 끝에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트나피쉬티를 만나 우트나피쉬티의 부인에게서 블로초를 받지만 바로 그것을 먹지 않는다. 자신의 나라에 돌아와 모든 사람들과 블로초를 나누려고 하는 영웅다운 동체대비(同體大悲)의 큰 생각을 하지만 잠든 사이에 그만 뱀에게 도둑을 맞아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허무한 이야기다. 이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영생이 헛된 욕망을 깨닫게 해준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왜 인류 최초의 서사시에도 영생을 추

구하는 이야기가 있으며, 이것이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도 블로초를 찾았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진시황은 항상 자신을 암살하려는 적들이 많다는 의심 속에서 평생을 살면서 부귀영화를 오래 누리려고 했는지 블로초의 존재를 알고 있는 서복이라는 술사를 보내 온 천하를 샅샅이 뒤져 블로초를 가져오라고 명령한다. 서복은 그 옛날 한국과 일본까지 가서 찾았지만 결국 허탕을 친 후 진시황에게 돌아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해 일본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서복의 흔적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제주도를 거쳐서 아마 일본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서복의 후손들이 일본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일본총리를 지낸 모리 씨이다. 진시황은 아이러니하게도 연금술사들이 만든 수은으로 만든 약을 많이 먹고 40세의 나이로 일찍 죽었다고 한다. 하지만 진시황의 영생에 대한 갈구가 얼마나 거대한지 그는 비록 육신이 죽었을지라도 사후세계에서 영원히 자신의 제국을 다스리려 했던 모양이다. 그것은 그의 광대한

무덤에 나타나 있다. 그의 무덤은 땅속에 건설된 자신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케도니아의 영웅 알렉산더 대왕 또한 불과 20대에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켜 지중해에서 인도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한 영웅이지만 지중해의 작은 나라의 왕에서 대제국을 건설한 그도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청춘의 샘을 찾았다고 역사는 전한다.

길가메쉬, 진시황 그리고 알렉산더 말고도 블로블사를 찾는 영웅들은 많이 있다. 또한 영웅은 아닐지라도 역사에 블로블사를 찾았다는 기록을 남긴 이들도 많다. 중국 한나라의 무제, 초대 푸에토리코 총독인 폰세 데 레온(Ponce de Leon) 등등.

### 블로블사를 찾는 현대인들

요즘 증권가에는 바이오 관련 주가가 인기가 많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가 곧 오기 때문에 은퇴 후 좋은 건강을 유지하려는 욕구의 반영일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람들의 장수 및 영생의 욕구는 현대도 마찬가지이므로 현대판 블로초와 회춘의 샘을 찾는 사람들도 제법 많다. 유전자 공학의 발달에 힘입어 신약의 개발과 유전자 편집기술이 이에 이용되고 있으며, 나노 로봇을 이용하여 불치병을 고치고, 복제기술을 통해 만든 고장난 장기를 새것과 교체하며, 인공지능의 발달로 자신의 뇌에 들어 있는 정보를 컴퓨터에 다운받아 육신은 죽더라도 디지털 세계에서는 영원히 살아남고자 한다. 과연 인류의 이런 노력들은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낼까? 적어도 인간 수명 연장에는 다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는 영생이 불가능하다. 오직 영생은 감로로써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닙니다. 내 자식을 살려서 영원무궁토록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안다면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야 엄마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이 사람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서 다 승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소원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모두 하나님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 여러분들과 더불어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소원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간다면 이 사람을 울리는 것이요 이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죄와 상관없이 사람이 되어 이긴 가지가 되기를 이 사람은 밤이면 밤마다 분신으로 여러분의 집집마다 찾아가 죄와 상관없이 살도록 죄가 있으면 씻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이 편히 자는 시간에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만 안 지으면 이 사람을 돕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협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 금주의 말씀 요절

###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05> “하나님이 인간의 핏속에서 작용한다”

오늘날 사람을 보면 하나님임을 알 수 없다. 사람의 말이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 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신이다. 온전자가 나와야 온전한 말씀을 하고 온전한 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다 한 피요,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공중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요, 부모

님 피로 만들어졌으며, 계속해서 소급해서 올라가면 처음 조상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이다. 또한 죽어 가면서도 죽기를 싫어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영원무궁토록 죽지 않는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의 핏속에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 행복한 노년 준비

#### 내 몸 얼마나 아십니까 - 피부

요즘 피부미인에 열광합니다. 피부가 아름다우면 사람까지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피부는 마치 포장지처럼 우리 몸 표면을 온통 덮고 있습니다. 피부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 죽기 때문에 단순히 포장지에 비유할 수만은 없습니다. 피부는 인간의 존재적 생명적 정체성과 개성, 인종을 규정하기도 하는 개념입니다.

혈관, 3m 내외의 신경, 100여 개의 땀샘, 수백 개의 신경다발이 담겨 있습니다. 온도와 통각, 촉각을 받아들이는 감각신경과 더불어 피부색을 결정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세포들이 엄청나게 들어 있는 것입니다.

#### 오장육부의 거울 피부

한의학에서는 체내의 진액이 땀의 형태로 스며나가고 살결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 피부라고 말합니다. 밖으로 부터의 나쁜 것의 침입을 막고, 수액대사와 체온을 조절하며 호흡을 조절합니다. 또, 피부의 건강 여부는 폐가 주관한다고 파악합니다. 폐는 체내의 오장육부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면서 아래 장기를 감싸 안듯이 피부는 전신의 기류, 근맥, 장부, 골격 등을 모두 껴안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피부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는 오장육부 전체의 영향을 받지만, 온몸 구석구석 관통된 경맥의 흐름은 오직 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피부는 폐가 주관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폐가 허약할 경우 땀구멍의 열고 닫음을 주관하지 못해서 계속 식은땀이 흐르거나 쉽게 외부의 나쁜 것의 침입을 받습니다.

#### 신체 내외 상태에 따라 변하는 피부

의외로 피부는 성인의 경우, 16㎡가량의 넓이에 3.5-4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인체에서 제일 크고 무거운 기관입니다. 피부는 신체의 다른 어떤 기관보다 성장이 빠르고 평생 새롭게 변화합니다. 잠을 잘못 자거나 속상한 일이라도 있으면 허룻밤 사이에도 얼굴이 까칠하고 안색이 변하며, 피곤하면 다크서클이 눈 밑에 끼는 것도 피부가 신체 내외의 상태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조 직이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나뉩니다. 간혹 피하조직까지 피부에 포함시키지만 피하조직은 말 그대로 피부 밑의 조직이며 거의 지방질이므로 엄밀히는 피부가 아닙니다. 표피는 다시 각질층(케라틴 층)과 그 안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핵이 없는 죽은 세포층을 우리는 때라고 말하며, 이를 뽕뽕 문질러 벗겨내기도 하는데 이는 굉장히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 각질층은 수분 유출을 방지해 보습 역할을 해주고 병원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일종의 방어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의 벽체와도 같은 것인데 자꾸 벗겨내고 무너뜨리면 집 안이 어떻게 될까요?

표피 안쪽과 진피에는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는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피부 안쪽을 지키기 위하여 강한 일광에 피부가 검어지는 것은 멜라닌의 활동 때문입니다. 표피를 희생하여 피부 안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진피는 명실상부한 진짜 피부입니다. 체내의 혈관과 신경, 분비샘, 지방질이 불거져 나오거나 흘러내리지 못하게 포장지처럼 감싸 안고 있는 조직입니다. 표면 1㎞의 진피에는 평균 약 10개의 모낭과 15개의 피지선, 90cm가량의

흔히 피부를 오장육부를 비취주는 거울이라 하는 까닭은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병증이 체내 기혈의 변화 상황을 속속들이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피부에 마른버짐이 피거나 건조해서 가렵거나 습진 등으로 진물이 줄줄 흐르는 모든 문제는 몸속에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신호입니다. 현대인들은 피부의 문제를 체내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런 사고방식으로 인해 스테로이드 연고의 남용이 이루어집니다. 피부 겉에 뽕뽕 바르거나 해서는 절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으며, 또한 부작용도 심합니다. 피부질환 치료가 힘든 이유는 스트레스 조절과 여러 가지 습관과 몸 상태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부미인이 되고 싶다면 생활 전반에 걸쳐 아름다운 생활습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주호 기자

## 어버이날 특별 말씀

### 인류의 아버지 구세주 자식들이 범죄 안하기 정말 원해

이 사람은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아주는 엄마입니다. 시간 시간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마귀가 공격하지만 늘 이 영적 엄마가 분신으로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맙다는 마음을 가진 자가 몇 수가 되지 않습니다. 어리디 어린 심령이라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이니

다. 그때마다 이 엄마는 서운한 마음도 들지만 이 엄마는 고맙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살려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자식인고로 어쩔 수 없이 그 자식이 죽을까봐 어떤 희생이라도 무릅쓰고 살려주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덕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자유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기를 쓰며 구세주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힘들어도 웃고 살면 영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